신안군 국제 블루카본 도시 도약한다

갯벌 탄소 흡수력 연구용역 보고회
저장 생태적가치 56조원 확인
지속 가능 탄소 저장 자원 활용 박차

신안군이 국제적 블루카본 도시로 도약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1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갯벌 탄소 흡수력 규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우량 군수와 국립공주대학교 유영한 교수, 신안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신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논의하고, 블루카본으로서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신안 갯벌이 보유한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해 탄소배출권 확보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갯벌 유형별로 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신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연간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고 갯벌 보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이 총 1773㎢에 이르며, 탄소 저장량은 약 13억t으로 추산됐다.

또 갯벌의 탄소 저장 가치를 평가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잠재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갯벌 토심 40m를 기준으로 생태적 가치는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 유형별로는 뻘갯벌(82.85%)이 주요 탄소 저장 기지로 총 12억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혼합갯벌과 모래갯벌도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신안 갯벌에 매년 1㎝의 퇴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탄소 흡수량은 124만t에 달하며, 이를 생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98~141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돼, 신안 갯벌의 보전 및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안 갯벌을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저장 자원으로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갯벌을 IPCC 인정 블루카본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갯벌로 세계유산에 최초 등재된 와덴해사무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3국), 2019년 7월 세계자연유산(황하-보하이만 연안의 철새보호구)에 등재된 중국 옌청시와 함께 국제 협력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제 갯벌 블루카본 등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후 IPCC 인정 블루카본 확대와 관련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군수와 교수 등이 지난 11일 '신안 갯벌 탄소 흡수력 규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신안 갯벌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논의했다. 〈신안군 제공〉

곡성군, '호남권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 선정

곡성군이 올해의 지역통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

곡성군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농업인교육 종합안내 콘텐츠 구축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 유도'를 주제로 참가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권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통계의 활용성과 창의성을 평가했다. 지역통계 우수 심사는 ▲지역통계 정책활용 사례 ▲지역통계 개발과 개선 실적 ▲기술지원과 컨설팅 참여도 ▲통계역량 강화 노력 ▲지역통계 수요조사 협조도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귀농·귀촌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인교육 종합안내 콘텐츠 구축'과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의 정착 유도' 등을 통해 활발한 청년인구 유입을 이끌어 낸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동아리 인형극 공연

어린이집 원아 720여명 관람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전공동아리인 '알찬마루제'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내 마음 속 까만 괴물' 인형극을 공연했다. 〈사진〉

유아교육학과 개설 20주년을 맞아 알찬마루제가 마련한 인형극은 초청 공연과 방문 공연 등으로 총 3회 진행됐다. 지난 12일과 14일에 나주 관내 17개 어린이집 470여명의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을 동신대로 초청해 공연을 가졌다. 13일에는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 내 어린이집과 광주 더선우유치원을 방문해 공연했다. 방문 공연에는 250명의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이 관람했다. '내 마음속 까만 괴물'은 주인공이 진실한 얘기를 통해 거짓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주 동신대 유아교육학과장은 "전공동아리를 통해 유아교육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교육하고 있다"며 "행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광양시 다음달 10일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광양시가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력을 증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노지)는 10a당 50포/20㎏(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는 10a당 100포/20㎏(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공급시기·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 외 우편이나 메일·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영암군 지역 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외국인주민에 정착지원금 지급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60만원

영암군은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에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살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주민(F-2-R, F-4-R비자)이 초기 거주비 등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음식점과 생활용품 판매점 등 1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완도군,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완도군이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군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바다를 품은 완도'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완도의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이해하는 청소년 다큐 촬영단, 섬마을 청소년·주민들과 함께하는 섬마을 탐방, 버스킹 등으로 구성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